

## 2025 <염전 이야기> 배우 오디션 지정대사

### 1. 여 / 10대

(돌을 쌓아 올리며)

하나, 둘, 셋. 소원을 빌려고요. 이 돌을 다 쌓으면 소원을 빌거예요.  
소원이 뭐냐고요? 그건, 비밀이에요. 원래 이런 건 말하면 이뤄지지 않거든요.

제 이름은 태지입니다. 유명 가수와 이름이 같죠.  
서태지는 이제 데뷔 3년, 사실 내가 먼저긴 합니다.  
친구들은 제 앞에서 '난 알아요'를 부릅니다.  
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실 때면 저는 늘 고개를 숙입니다.  
심장이 쿵닥쿵닥 뛩니다. 차라리 몸이라도 아팠으면 좋겠습니다.

### 2. 남 / 60대

내가 못 올 데 왔어? 왜 그렇게 쳐다봐?

후계자? 내가 언제?  
아직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. 내가 그 나이땐 말이야.

에헤이. 그게 뭐 하는 거야. 이걸 이렇게.  
(염전에서 직접 밀대를 움직이며 가르쳐주려 한다.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)

맘처럼 안 되네. 허허. 그래. 그래. 알아서 잘하겠지.

그래.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야.  
열심히 잘하고 있구먼. 근데 다만, 좀 부지런해져야 해.  
특히 비가 올 땐 창고 정리를 미루지 말고,  
그리고 말이야... (천천히 걸어 나간다)

### 3. 여 / 30대

손 씻어. 밥 먹어야지.  
흠장난 그만하고. 네 외삼촌온대.  
네 외삼촌이 웬일인지 모르겠다. 통 연락도 없더니.  
나도 그때 이후 처음 보는 거야.  
그래도 할머니가 좋으신가 봐.

손 다 씻었어? 어디 봐.  
(아이의 손을 확인하더니) 으이구, 이게 씻은 거야? 이리와 다시 씻게.  
(아이의 손을 씻어준다) 비누칠해서 뽀뽀 닦아야지. 그냥 물만 묻히면 돼?

숙제는? 어서 들어가서 숙제해.

### 4. 남 / 30대 ~ 40대

이 밀대 가져다드리러 왔거든요. 이 밀대 참 오래 쓰셨죠. 다 낡았네요.

처음엔 아저씨하고 잘 안 맞았어요.  
저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가보자고 하는데  
아저씨는 이 밀대도 그렇지만,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거든요.

혹시 아세요? 소금이 단 거?  
제가 염전 일 시작한 날 아저씨가 그러셨거든요.  
소금이 달게 느껴지는 날 염전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.  
전 그날 이후 매일 소금 맛을 봤어요.  
근데, 오늘 소금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.